

中, 저탄소경제의 발전방향과 대책 논의

CQC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저탄소경제·인증 서밋'에서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주최한 '저탄소경제·인증 서밋'이 지난 해 11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3대 주제는 '저탄소경제의 시장 메커니즘과 발전정책',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에너지전략', '저탄소경제에서 저탄소 인증 및 표준화의 역할'이다. <편집자>”



▲ '저탄소경제·인증 서밋'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저탄소 경제정책에 호응했다.

지난해 11월 25일, 베이징에서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주최한 '저탄소경제·인증 서밋'이 개최되었다. 전 세계 기후와 경제상황, 중국 12차 5개년 발전계획을 화두로 한 이번 회의에서는 저탄소 분야의 전문가, 인증기관, 기업대표 등이 참석해 저탄소경제의 시장 메커니즘과 발전정책, 중국 에너지발전전략 등을 토론했다. 또한 저탄소경제에 있어서 저탄소인증 및 표준화가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국 저탄소산업·기술·인증 분야의 발전전략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3대 주제는 '저탄소경제의 시장 메커니즘과 발전정책', '지속가능한 발

전을 촉진하는 에너지전략', '저탄소경제에서 저탄소 인증 및 표준화의 역할'이다.

전문가들은 '그린 이니셔티브'에 공동 서명

'저탄소경제의 시장 메커니즘과 발전정책'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전략과 법률에 대해 토론했으며, 국제 CDM프로젝트와 중국 탄소시장의 발전모델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에너지전략' 세션에서는, 중국에너지화학 부회장이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전임 소장이 중국 향후

10년의 에너지발전전략에 대해 강연을 했다. 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 재생에너지발전센터 주임이 중국 신에너지 발전현황 및 정책에 대한 기초연설을 했고, 중-독 재생에너지 협력센터 주임이 주제 강연을 통해 독일에너지 전환현황과 중-독 재생에너지 협력계획을 소개했다.

저탄소경제에서 저탄소 인증 및 표준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인증인정협회 부 사무총장의 설명에 따르면, 저탄소인증은 저탄소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특히 에너지절약·오염저감기술과 효과에 대한 검사는 저탄소경제를 운영하는 두 가지 기본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저탄소 인증제도를 구축하려면 저탄소경제의 발전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그린 이니셔티브'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정부의 저탄소 경제정책에 호응했다.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생산과 소비단계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인증'은 상품을 매개로 하여, 전 사회가 생산과 소비단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상품에 저탄소마크를 부착함으로써, 고객이 주도하는 저탄소제품 구매·소비 모델을 사회가 추구한다.

대중의 선택적 소비가 기업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 기술발에 매진하도록 하고 저탄소생산 모델로 바뀌게 하며 마침내 온실가스의 총량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저탄소 인증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해외에서는 저탄소제품 인증이 최근 이·삼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현재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등 십여 개 국가들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경제, 가치관의 변혁은 20세기의 전통적인 성장모델을 버리고 저탄소경제 모델과 저탄소 생활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탄소경제는 광의의 사회적 의미를 갖는 선도적 경제이념이지만 아직까지 일반화된 정의가 없으며 산업, 경영영역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I&S



저탄소경제는 선도적 경제이념으로 산업, 경영영역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